

# 농업 ·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있어야

‘시장경제 침투 · 농촌가치 재평가’ 등 농업 보는 시각 크게 달라져  
 ‘무궁무진한 가치’ 정리 · 발굴 여하 따라 농업 농촌 크게 달라질 것

**자** 유무역체제 이후 농업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경제의 침투이며, 다른 하나는 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에서 하나의 상품 생산으로 보는 시장경제적 개념이 침투하고 있고, 농촌도 농사짓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볼거리, 쉼터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려는 시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최근 농업과 농촌이 갖는 비시장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업이나 농촌이 환경이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거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산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굴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농업과 농촌은 가치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생활과 관련을 갖고 있는가.

## 환경재 · 문화재로서의 농업

도시의 과밀화와 함께 농촌에서의 휴식공간을 찾는 도시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경제적 풍요와 함께 농업자원이 이제 생산재에서 환경재 내지는 문화재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속속 목격되고 있다.

최근 농촌 곳곳에서는 민속촌이나 박물관, 전시관들이 설치되고 있다. 지역의 역사

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이곳을 찾는 도시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 고유문화의 원천인 농경문화에도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여러 모양으로 농촌의 자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새로운 문화산업 만들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을 활용하는 광역적 커뮤니티(community) 만들기도 한창이다. 일사일촌(一社一村)과 같은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농촌부락과 도시기업들이 협정을 맺고 서로 하나가 되는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 만들기를 위한 사업들도 하나 둘씩 눈에 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재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가 농지를 매입하여 노인을 위한 뉴 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들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체원지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받을 가꾸게 하고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중장년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지자체와 연계한 뉴 타운 조성사업이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 수경재배, 취미농업 등 일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마을 조성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농업과 농촌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자연과의 대화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초등학교의 이동교실이

나 자연교실, 한 주 간 정도의 집단 숙박수업이 행하여진다. 그곳에서는 아동들의 체력증진이나 노동체험,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인간적 교감, 지역 문화와의 교류와 같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이 예술 창작활동의 최적지로 선택되기도 한다. 농촌에는 음악과 무용, 연극과 같은 소재가 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재들은 창작을 위한 최고의 재료이며, 또한 무한의 대상이기도 하다. 무대예술을 비롯하여 조각이나 도예, 설치미술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도시의 빌딩과는 달리 그들만이 해방감을 갖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폐교는 이들에게 더 없는 창작공간이다. 이러한 문화활동이 좁게는 농촌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국가적으로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재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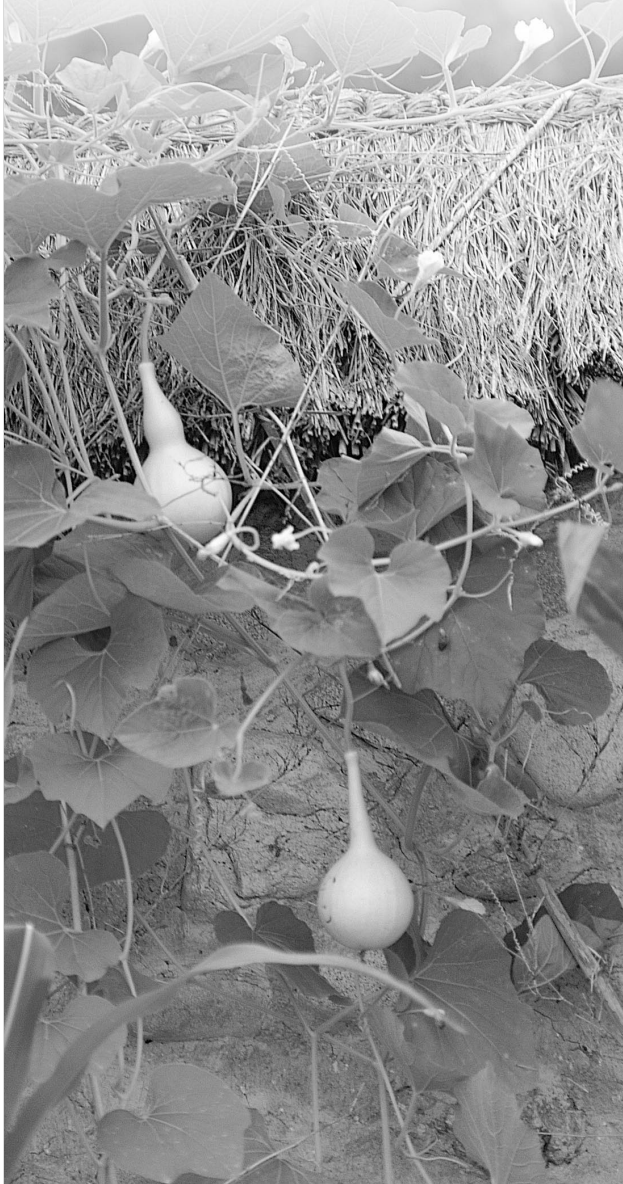
### 의료·보양의 장으로서의 농업

지금까지 많은 농산물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약리적 효능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산물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일상 식탁에 올리는 가지는 치통치료나 티눈치료에 좋다. 감자나 생강, 수박은 화상치료에 그만이다. 그밖에 미나리의 부종치료나 오이의 타박상



농업이나 농촌이 환경이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거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산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굴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치료, 고추의 화농성 염증치료와 같은 민간 요법들은 단방약들이기는 하지만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시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치료법이었다. 이러한 역할들은 예로부터 우리 생활과 늘 함께해 온 농업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농촌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와 정양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약초 웰빙(참살이) 특구나 한방특화도시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곳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살려 농촌지역에 농촌보양시설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자연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순환기 질환이나,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시설로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최근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의료사업의 기초를 만들어 가고 있다.

### 물 다루고, 산사태 막아주는 농업

지난 7월 우리나라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극심한 수해를 겪었다. 급류와 수량의 증가로 물이 강둑을 터트리고, 또 산비탈이 무너져 산사태를 유발시켰다. 50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와 함께 수천억의 재산피해가 났다.

토양은 내린 빗물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스펀지 역할이다. 그리고 부식질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 여러 부식과 뒤엉켜 있는 흙 속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 바로 공극(空隙)이다. 일반적으로 잔뿌리가 많은 비의 경우 흡수에서 비 뿌리와 토양이 서로 엉켜 하나의 네



트위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물이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이 잘 섞인 토양은 스펀지 역할이 더욱 커서 물을 토양 깊이 침투시키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농지가 잘 관리되면 산비탈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의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논 농업은 벼 생산을 통해 많은 물을 저장시켜 장마철 하천으로의 유출을 감속시킨다. 논이 하나의 자연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벼 생육기와 장마철이 겹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가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생육기 벼는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이 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장마 비의 상당 부분은 논에 저수된다. 이로 인해 하천으로의 유출량을 조절하고 하천범람과 같은 큰 피해를 막아 준다.

한편 산간지 농업은 삼림과 함께 토사붕괴와 그로 인한 산사태를 또한 막아 준다. 산자락에 개간된 밭에 심겨진 농작물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농작물들의 이파리들은 넓은 잎 면적을 통해 호우에 의한 압력을 직접적으로 피해 땅위에 떨어지는 빗물의 압력을 완화시켜 준다. 그리고 잘 발달된 뿌리를 통해 토양이나 흙의 유출을 막아 주고 있다.

### 탄산가스 흡수, 대기 안정시키는 농업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 중 79%가 질소(N)이고 약 20%가 산소(O<sub>2</sub>)이다. 그리고 나머지 1% 가운데 탄산가스(CO<sub>2</sub>)가 0.035%이다.

이와 같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산가스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미량이지만 농도가 안정되어 오랫동안 유지해 오으로써 지구생태계는 지금까지 안정을 유지하면서 순환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산가스의 증가로 온실효과라는 지구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낮에 태양으로 따뜻해진 지표면은 밤이 되면 적외선으로 열을 방사한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방사냉각(放射冷却)이라고 부른다. 우주공간으로 발산된 열에너지는 대기 중에서 탄산가스와 수분을 만나게 되고 만난 열에너지는 수증기로 흡수된다.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열에너지의 흡수도도 높아져 수증기는 지구를 덮는 모포나 온실과 같은 작용을 하여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기도 하고, 육지의 해안선을 후퇴시켜 물의 흐름이나 내륙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구온도도 상승한다. 이것이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식물들은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물과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한다. 이른바 광합성이다. 광합성은 식량의 근원인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작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 중의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기온도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농업생산은 식물인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농작물들이 흡수하는 탄수화물이 대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